

## 人蔘研究的 振興 方案

高麗人蔘學會長 韓 秉 勳

서울대학교 생약연구소 교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韓國담배 人蔘公社 洪斗杓 사장님을 來賓으로 모시고 또 前 會長任들과 學會 고문님과 會員 여러분 그리고 우리 學會 任員들과 함께 1991年度 夏季 Symposium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人蔘의 效能 및 成分研究를 主題로한 Symposium을 되풀이 하여 왔었습니다만 人蔘이 國內外 市場에 나갈 때는 人蔘의 原形을 찾아볼 수 없는 각종 人蔘製品的의 形態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들 製品을 科學的으로 品質管理를 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人蔘製品的의 品質管理를 科學的으로 研究하여 발표하는 Symposium은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의 Symposium 主題를 “人蔘製品的의 品質管理 科學化”로 잡았습니다.

本人이 1991年初에 學會長의 重任을 맡고나서 생각하기를 現時點에서 學會長이 해야될 가장 時急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손쉽게 생각하면 夏季大會를 개최하고 年末總會를 개최하고 또 學會誌를 발행하고 學會運營에 必要한 經常費를 넉넉히 調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國際 Symposium같은 것을 組織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4년에 한번씩 韓國인삼연초연구소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국제인삼 Symposium을 1993년에 개최할 예정이고 보면 본인이 학회장에 재임중에 학회주관으로 별도로 국제인삼 Symposium을 조직하는 것은 되도록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로 생각되고 있고 현시점에서 학회장이 주력을 기울여야될 부분은 이상열거한 활동보다 더욱 시급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인삼연구를 진흥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학회장 혼자 힘만으로는 너무 벅찬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도움을 얻어서 이 일은 꼭 성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今年 7月 中國 吉林省 政府 招請으로 10余日間 吉林省을 訪問한 바 있었는데 訪問한 所感은 한마디로 韓國人蔘이 오늘날 危機에 처해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龐大한 土地에 全世界 總生産量의 60% 以上이라는 過剩 栽培를 하고 있고 韓國人蔘과 種이 같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으면서 韓國人蔘의 10분의 1 程度의 가격으로 國際人蔘市場을 교란시키고 있는데 1992年 8月에는 中國-韓國-北韓-日本 4個國共同 國際人蔘 Symposium을 조직하자는 것입니다. 1993년에는 韓國에서 國際人蔘 Symposium을 開催할 예정이고 1994년에는 Canada에서 또 國際人蔘 Symposium을 組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國際 Symposium들은 各各 自國産 人蔘의 聲價를 높이자는데 根本的인 뜻이 있는 것이어서 이들 모든 國際 Symposium에서 韓國人蔘學者들의 研究發表가 質 및 量的인 면에서 가장 話題의 中心이 되어야 韓國人蔘의 드높았던 聲價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研究를 하였어도 每番 國際大會때마다 같은 內容을 발표하게 되면 참신한 맛을 잃게 되어 話題의 焦點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人蔘의 國際的인 聲價를 계속해서 維持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國內 學者들의 人蔘研究를 特別한 政策的인 配慮속에 振興시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 學會가 當面한 가장 時急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금년초 학회장을 맡게 되면서 이 문제를 이야기 해오고 있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담배인삼공사 사장님과 韓國인삼연초연구소 소장님께서 뜻을 같이해 주셔서 韓國인삼연초연구소와 우리 학회가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연구용역을 하였고 학회는 다시 본 학회의 상임이사회와 연구위원회장 회의를 거쳐 본 학회 회원 두분에게 연구비를 나누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진흥을 위한 본 학회의 활동이 이미 1991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시작된 것이어서 큰 규모로 연구진흥을 시킬 수는 없었지만 모든 국내 학회를 통털어서 학회가 연구진흥을

위하여 회원에게 연구비를 나누어 드리게된 예는 흔한 일이 아닐뿐만 아니라 1992년도에는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출발점 Tape를 끊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하여 본 학회장은 매우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담배인삼공사 사장님과 인삼연초연구소 소장님께 깊이 감사하고자 합니다.

來年에 담배인삼공사 및 인삼연초연구소에서 학회의 연구진흥 예산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해 주신다해도 연구진흥은 담배인삼공사나 한국인삼연초연구소가 맡아서 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 研究費 支給窓口가 單一化되는 꼴인데 어떤 일이든 窓口單一化는 副作用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共産主義가 亡한 것이 무엇때문입니까. 生産 分配 모두 窓口를 單一化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人蔘의 장래가 위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많은 人蔘學者들이 왕성한 의욕을 갖고 研究를 해서 이 세상 어떤 곳에서 國際人蔘 Symposium이 개최되어도 韓國人 人蔘學者가 韓國人蔘을 對相으로한 研究結果를 가지 누비고 다녀야만 되겠고 國際學界에서 評價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기 위해서는 담배인삼공사나 人蔘煙草研究所 뿐만이 아니라 人蔘을 生業으로 삼고있는 모든 業界 예컨대 人蔘製品工業協會 및 人蔘耕作組合聯合會에서도 高麗人蔘學會에 研究費를 내주심으로써 本學會 會員이 계속해서 참신하고 의미있는 研究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유지되어왔던 孤高한 聲價를 계속 유지발전 시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개최코자하는 人蔘製品 品質管理 科學化에 관한 Symposium은 國內에서 生産되고 있는 모든 人蔘製品의 品質을 分析 및 管理하고 있는 現況을 파악하고 또 우리의 分析技術이 어느 水準까지 向上 되었고 現場實施가 가능한 것인가를 論議해 보자는데 있습니다만 品質管理의 基準을 어떻게 設定하느냐에 따라서 産業이 發展 또는 萎縮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不良品이 범람할 수도 있는 것인데 現在 Saponin의 含量만을 品質管理의 基準으로 設定하는 것이 과연 合理的인 것인가 하는 문제를 5名の 演士들에 의한 강연과 여러분의 質問討論을 통하여 우리가 取할 수 있는 가장 발전적인 방향이 무엇인가를 논의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의 이 人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官産學의 一致된 의견 수렴과 協助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行事に 物心兩面으로 協助해주신 담배인삼공사, 韓國人蔘煙草研究所, 人蔘製品工業協會, 人蔘協同組合中央會 및 學會 特別會員이신 여러 會社 社長任께 심심한 辭意를 표하면서 開會辭로 가름합니다.

---

이 글은 1991년도 고려인삼학회 하계 심포지움 開會辭임.